

제 4 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 : 6 하).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위대한 장 중 하나이며 성경의 정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진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 장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3절에서 그 저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인간의 어떤 언어에서도 발견하게 될 사물의 원자적인, 분자적인 구성과 구조에 대한 최상의 진술을 뜻합니다.

7절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

비하셨느니라”는 승리의 대답입니다.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27절은 성경에 있는 가장 잘 묘사된 절들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믿음의 개념

믿음이란 어떤 단어보다도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써 농부는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 믿고 신뢰함으로써 몸을 열고 외과 수술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은행가는 그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고 권유합니다. 사업과 인생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사업의 세계에서 신앙의 언어, 교회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계약에 관하여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통장의 명칭(교파)은 무엇입니까? 이자를 원금에 산입(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상환(구속)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은행(First National Bank)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일 침례 교회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말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믿음이 땅을 갈고 바다를 향해하며, 우리의 제도를 세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영혼의 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통찰, 즉 영혼의 눈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나머지 피조물을 구별해 주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20세기 현대의 생활 중 모든 경이로운 것들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결과입니다. 라디오, 레이더, 텔레비전, 나일론, 제트 추진, 원자핵 분열, 페니실린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놀라운 것들은 창조 시초부터 여기에 있어왔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금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지고 어느 곳에나 있는—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 밑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를 봅니다.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믿음이 없는 자, 무신론자는 “그러나 나는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응합니다. 새로 갈아 엮은 밭이랑의 흙도, 들판의 짐승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개도 개집 안에서는 자기 위에 있는 멋진 창공에 대하여 완전히 잊기 쉽습니다.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암소는 주위의 모든 멋있는 경치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에게 하나님의 빛은 비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별들은 하늘에 있는 위성에 불과하지만, 시편 기자에게는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잎일 뿐이지만 조이스 킬머 (Joyce Kilmer)에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결코 알지 못하리라
 나무처럼 시를 아름답게.
 배고픈 입을 가진 나무는 기대리라
 땅의 달콤한 사랑의 가슴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잎새가지를 뺏쳐 기도 드리는 나무.

시는 나같은 바보가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으리라.

알프레드 테니슨경(Alfred Lord Tennyson)은 가장 작고 가장 보잘 것 없는 꽃에서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꽃아, 갈라진 벽 틈에서
 나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여기에 잡고 있다, 뿌리와 모든 것을,
 나의 손안에.
 작은 꽃—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너를, 뿌리와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텐데.

신앙의 눈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신앙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윌리엄 허버트 캐루드(William Herbert Carruth)는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먼 지평선의 안개,
 무한하게 펼쳐진 부드러운 하늘,
 무르익은 옥수수 밭의 풍요로움,
 그리고 날아가는 기러기 떼;
 그리고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
 매역취의 아름다움,
 어떤 이는 이것을 가을이라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 한다.

회의론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그가 내 앞에 여기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면전에 서있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자기 본위인, 자아를 높이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B.C. 63년에 폼페이(Pompey)는 유대를 정복하여 로마제국의 한 지방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는 정복군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들어왔고 그의 길은 성전 영역에까지 이르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장막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지성소를 모독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을 가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장막 너머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에 찬 오만한 폼페이는 오만한 태도로 장막을 옆으로 밀치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바퀴 돌고나서 일어나와 “왜 그러는가, 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텅비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1~3).

폼페이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강탈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장엄함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빼앗아 마차에 실을 것이다. 내가 유대와 여호와의 정복자로 로마의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릴 때 그가 나의 승리를 빛내 줄 것

이다!” 그것이 여러분인 인간입니다! 그는 사용될 수 있고 전
시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는 여기 우리 앞에서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폼페이 같은 오만한 이
교도나 믿음 없는 자 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놀라게 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
중에서도 하듯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울부짖는 것입
니다.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
으로 여기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욥 13:24). 욥기 23:3에서
그는 다시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1에
서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
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1에서 그는 다시금 “여호
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는 이사야 45:15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
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 64:1~2에서 그 예언자는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쏘을 사
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3년 동안 주와 함께 지낸 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
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무대에 서서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령 미식 축구장(Cotton Bowl)이
나 어떤 중요한 취임식같은 거대한 집회에 내려오셔서 “보라, 하
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적인 접촉을 위하여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하
여 대답하고 대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안에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웃입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하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썼습니다(1:18). 우리의 정신은 무한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폭발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전능자의 전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꺼운 안경으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0~23).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가두고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을 때 주님은 손을 거두어 모세가 전능자의 영광의 옷자락을 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경이로운 피조물을 웃 입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천사의 출현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든지 “두려워 말라” 또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안심시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는 한 손으로는 토성 주위를 도는

직경 칠만 육백 마일의 황금 고리를 만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세한 곤충 다리의 끝을 만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은 이글거리는 태양을 구천 삼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에 위치하게 하시고 다음 날은 그의 무지개 빛깔로 작은 꽃잎을 칠하시고 그리고 난자가 수정되도록 곤충을 매력으로써 유인키 위하여 약간의 방향(芳香)을 그 잔처럼 생긴 가슴에 떨어뜨리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명인으로서의 그의 손은 어느 곳이나 비칩니다! 그는 이 경이로운 우주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시대에 로마시에서, 그 위대한 예술가가 눈이 멀었을 때 사람들은 퇴적 더미에 묻혀있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것이 틀림없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켈란젤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예민한 손으로 그 조각을 만졌읍니다—눈썹과 이마, 코, 얼굴의 윤곽, 어깨를 만지고 나서 눈 먼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인의 작품입니다. 틀림없이 피디아(Phidias)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할바 없이 경이로운 피조물의 윤곽을 더듬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명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화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읍니다.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피조물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화로운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 안에 자신을 감추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옷 입읍니다. 주 하나님의 모든 이적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성에 관한 불가사의는 하나님

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 14).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에 싸여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의 신성은 그의 육신의 베일을 통해서 비치었습니다. 헤르몬 산 위에서 그는 가장 친밀한 세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의 용모는 해처럼 빛이 났으며 그의 옷은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육신의 베일을 통해서 빛났습니다.

그가 배에서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그를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기록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고 계속됩니다(막 4 : 38하~39상). 하나님의 신성은 그의 육신의 베일을 뚫고 빛났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요 18 : 6). 주님의 신성이 그의 육신의 베일을 뚫고 빛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 나뉘어지고 찢겨진 베일을 통해서 그가 영광에로 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옷 입었을 때의 그 경이로운 자기 계시의 놀라움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으로 자신을 덮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의 섭리와 경험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를 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의 비극 속에서 그를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는 교회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그와같은 하찮고 관계 없는 초대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은 교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날 어떤 어린 친구가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큰 사업가가 문에 나오자 작은 소년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내려가다 차에 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거리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의 자전거 전체가 부숴지고 휘어지고 피로 덮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위에 몰려있던 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친 차가 신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달려와서 그 시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심하게 다쳐서 방금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까?” 마침내 한 병원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의 아들은 심하게 다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애야, 나는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애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를 모른다!” 그 작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 교회 학교에서 기도를 하나 배웠어요. 나와 함께 그것을 하시겠어요?” 그 소년이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풀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가 되풀이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작은 소년이 기도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아버지도 계속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소년이 덧붙였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그 작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기도를 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아버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그 소년의 손이 축 늘어졌읍니다. 그 아버지가 소년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그만 허물어졌읍니다! 그 아버지는 마루에 엎드려 고통스런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는 놀랍고도 경이롭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나는 일찌기 미국이 배출했던 가장 훌륭한 지식인 중 하나의 말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세기의 50년 이상이나 프리스텐 대학교의 신학부의 학장이었던 찰스 핫지 (Charles Hodge) 박사는 일찌기 인간이 썼던 조직신학 책 중 가장 훌륭한 것 한 권을 썼읍니다. 그것으로부터 인용합니다.

도덕성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위험이든지 고통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접근이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도 불신앙을 추방한다. 사람들은 회의론을 거쳐 신앙에로 즉시 넘어가는데, 그것은 논쟁의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의론과 대립되는 의식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불신앙이 존재할 수 없는 과정 안에서 넘어간다.

아마도 우리는 인간다움의 강한 힘이 한창일 때는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개지고, 상처입고, 울게될 때는 당장 논란의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그리고 우

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의 신성의 베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멋진 발견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나는 겸손한 신앙과 침묵으로 받아들임으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소서. 그리고 좀 더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내일을 소망하게 하소서!